

# “가족·이웃 함께 평화·화합 의미 되새겨요”

남구 ‘푸른길 평화통일 시민 축제’ 오는 20일 남북교류협력추진 교육·체험 버스·시민 참여 공연 등



광주 남구는 오는 20일 백운광장과 푸른길 공원 일원에서 ‘푸른길 남구 평화통일 시민 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축제 모습. <광주남구 제공>

광주 남구는 14일 “백운광장과 푸른길 공원 일원에서 오는 20일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공감하며 체험할 수 있는 ‘푸른길 남구 평화통일 시민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구협의회, 통일안보, 광주하나센터, 광주통일관, 남구 평화도슨트, 광주백범기념사업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올해 축제는 통일교육 체험 행사와 시민 참여형 공연, 전문 예술인 무대 등으로 구성된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통일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평화통일 사진전 관람 ▲통일 VR 체험 및 색칠 놀이 ▲한반도 지도 달고나 뽑기 ▲통일 염원 메시지 작성 ▲평화통일 풍선 꾸즈

▲남북한 전통 놀이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다. 음악에 맞춰 평화의 꽃을 표현하는 어린이 율동과 통일 줄넘기 공연 등 시민 참여형 공연

이 30여분간 이어지며 정운호 미술사의 무대도 약 30분간 진행된다. 남구 관계자는 “평화통일 시민 축제는 통일을 특정 세대나 일부 계층의 과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미래 지향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라면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기며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형우기자

서구, 침수 취약지 하수도 시설 정비 이달까지 맨홀·빗물받이·안내판 등

광주 서구가 여름철 집중 호우와 국지성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수도 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14일 서구에 따르면 사업비 13억여원을 투입해 침수 취약 지역과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빗물받이·하수관로 준설, 빗물받이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한다. 서구는 집중 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안전사고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관련 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서고 주변과 동남아파트 일원 등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500여곳에 맨홀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빗물받이와 하수관로 내 토사·퇴적물을 정비해 배수 기능을 높일 방침이다. 배수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 정비도 함께 진행된다. 서구는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체 빗물받이 주변 덮개와 적치물을 점검·제거하고 하수관로 내부 토사와 퇴적물을 정비해 집중호우 때 배수 장애를 줄일 방침이다. 또 마곡동, 서창동 등 침수 우려 지역에는 안내판 90여개를 설치해 빗물받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적치 등으로 인한 배수 장애를 예방해 주민들의 관리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침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기자

## 광산구, ‘직장 내 갑질’ 예방·대응 지침 시행

‘금지 행위’ 8가지 분류·명시 예방 교육·익명 조사 등 병행

광주 광산구는 14일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 기준을 담은 ‘직장 내 갑질 행위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낡은 관행, 갑질, 괴롭힘 등 직원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발적 참여의 영역에 머물렀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갑질 예방·근절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명문화해 실천 강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광산구 소속 공직자, 공무원·기간제 노동자, 청원경찰에 적용된다.

광산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괴롭힘·인격권 침해·모임·회식 참석·음주 강요 등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총 8가지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지침에 명시했다. 또 중간관리자급 이상 간부 공직자의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조직문화를 점검하는 익명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 교육·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 직원 인권 보호를 위해 갑질 피해 사실 접수, 조사·상담 등을 담당할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 접수 또는 문제 발생 시 신고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원 공개 금지 신속한 분리 조치 등 구체적 방안도 지침에 포함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갑질 없는 공직문화를 당연한 상식을 넘어 타협 없는 원칙으로 세워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상호 존중, 배려, 소통을 실천하며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육근기자

동구, 국가재난관리 유공 ‘국무총리 표창’

광주 동구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자연재난(홍수해)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재난관리 유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 등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포상이다. 동구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인명 피해 우려·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합동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계류보전 사방 사업과 급경사지·소하천 정비사업 등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고 2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25년 여름철 집중호우 당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했다. 재난 발생 이후에는 지역자율방재단과 통장단 등 민간 자생단체와 협력해 응급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구민들과 현장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하고 선제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 북구, 광주 유일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선정

성평등가족부 주관...지급기 56대 설치 내달 본격 운영...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

광주 북구가 지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성평등가족부 주관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4일 북구에 따르면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은 긴급한 상황에서 생리대가 필요한 여성들

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에 무상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4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했으며 전국 12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북구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2억4천여만 원을 확보했다. 확보된 예산은 무상 생리대 지급기 56대를 신규 설치·운영하는 데 사용된다. 지급기는 도서관과 문화센터, 체육시설, 청소년



년시설 등 주민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에 설치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북구는 시설별 이용 수요를 파악해 생리대를 공급하는 등 운영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북구는 정부 시범사업 선정 전인 2020년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공시설 내 무상 생리대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북구청과 일곡도서관, 운암도서관, 북구 문화센터, 북구종합체육관 등 10개 시설에서 지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북구 내 무상 생리대 지급기는 기존 10대에 신규 56대가 추가돼 총 66대로 늘어난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필요할 때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그동안 축적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용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